

보도 자료	보도일시	2023. 04. 06(목) 14:00	
	배포일시	배포즉시	
	담당자	031-244-6501	박지현 부국장

**승리하는 경기도당!
이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서면 브리핑]

임종성위원장,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 부정하는 일본 사도광산 방문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시도,
일본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겠다” 의지 밝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위원장은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리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저지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4월 6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번 사도광산 방문은 안민석, 양정숙, 윤미향 국회의원 등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 의원모임 국회의원들과 김준혁 한신대 교수 등 민간인 교류단이 함께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이 있는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으며, 유네스코는 당시 한국을 포함한 피해국 정부의 우려를 반영하여 총회에서 강제동원의 사실을 밝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조선인 강제동원 명사’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강제동원의 역사를 지닌 미쓰비시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 측은 일관되게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대상지에 신청 기간 등 모든 역사를 기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인하고 이 기간을 제외하고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임종성 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은 세계의 모든 시민이 공유해야 하는 완전한 역사이어야 함에도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제외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침략 역사를 숨기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함도 등재 시 약속을 어기는 등의 행위를 볼 때 일본의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군함도는 일본 정부에 속아 못 막았지만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며 일본의 의도에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요시자와 후미토시(니이가타 국제정보대학) 교수가 주선하는 <한일역사연대시민>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일본 현지의 <사도광산 사실조사 시민단체>의 코스키 쿠니오(전 사도시 시의원) 활동가 등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관계부처 등을 방문해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확산 시킬 계획이다.

2023. 04. 06(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붙임1

보도자료 사진

